

‘부자 되세요’ -적립식 펀드

연초에 아마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냥 하는 인사말 정도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는 것이 우리네 셀러리맨들의 한결 같은 마음일 것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말하는 2006년 재테크 기상을 살펴보면 ‘주식 = 맑음’, ‘부동산 = 구름 많음’, ‘채권 = 흐림’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05년 종합주가지수가 1379.37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최근 적립식펀드가 연 30~40%의 고수익을 기록하면서 적립식펀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적립식 펀드에 대해 알아보자.

▣ 적립식 펀드

일정기간마다 일정금액을 나눠 장기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는 것으로, 펀드(fund)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성한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을 말한다.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자들이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적립식 펀드는 정기적금처럼 일정 시기마다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적립식 펀드는 목돈 없이도 투자가 가능하며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이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익이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만기 때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낮거나 심한 경우 원금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 적립식펀드 가입시 고려해야할 점

1. 대박에 대한 환상을 버리자.

얼핏 적립식펀드 또한 주식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나 펀드 수익률이 상승하면 덩달아 높은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는 사람들이 실제 손에 쥐는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다. 주가가 상승하면 적립식펀드 가입자도 수혜를 입기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지를 갖고 꾸준히 펀드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차피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시점에서의 증시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2. 적립식펀드의 투자 상품 선정

적립식펀드의 열풍으로 변액유니버설보험과 변액연금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넘는 상품이 있다. 이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수익률이다. 작년 펀드간 수익률 차이가 5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경우도 있는 만큼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펀드의 수익률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나 한국펀드평가(www.kfr.co.kr), 펀드닥터(www.funddoctor.co.kr)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펀드 수익률은 최근 평가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펀드의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의 펀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수익률만을 따져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다. 수익률보다는 투자목적에 따라 상품선택도 달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주택자금이나 자녀 학비 마련을 위해 3년에서 5년 이내로 투자하기를 바란다면 주식비중에 낮은 안정형 상품이 바람직하고,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간 투자를 바란다면 주식편입 비중이 높은 성장형 상품이 좋다.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여유 자기에 대한 재무설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수수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적립식펀드를 비롯한 모든 펀드관련 상품은 판매,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을 매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수수료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거치식펀드의 경우 대부분 연 1% 내외의 수수료를 내는 반면, 적립식펀드의 경우 2~3%로 일반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다. 또 현 적립식펀드의 수수료 체계는 장기투자를 할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가입 시 한꺼번에 4~5%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 선취형이 대부분이지만 국내 펀드는 연간 보수 개념으로 매년 수수료를 떼고 있다. 또한 펀드운용수수료 부과 대상은 원금이 아니라 평가액(원금+수익금)이므로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투자기간과 투자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하는 '클래스 펀드' 라는 상품도 나왔다.

4. 이체 시기는 월말보다 월초가 유리

월간 단위로 매월 적립액을 이체하는 경우, 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다를 수 있다. ○○증권이 최근 국내 대표 우량기업 20개사에 투자하는 상품인 대표기업지수(KLCI) 인덱스형 적립식 투자고객 4만여 명의 계좌를 5일 간격으로 분석한 결과, 매월 5일에 적립하는 투자자의 수익률이 3.64~19.35%인 반면 월별 평균 최저 수익률은 1.35~17.74%로 나타났다. 증권사나 은행들은 펀드로 돈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주식을 일괄 매수해 월말에는 적립식펀드 효과로 주가가 월초에 비해 다소 올라간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급여일이 20~25일인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월말보다는 월초에 이체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